



리 벤처기업협회가 이달에 창립 1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벤처문화를 대중화시켜 온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협회는 어느덧 신경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5년 지식정보산업을 앞당기고, 노동집약형인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공감한 벤처 오피니언 리더 10여 명이 모여 협회를 만들 때를 상기하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돌이켜보면, 협회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창립 당시 벤처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기술만으로는 창업하기가 어려웠으며, 투자가 없는 융자중심의 금융환경과 벤처캐피탈들의 투자가 미미하여 연구 개발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지도 낮은 기술계 중소기업으로는 인재확보 또한 불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벤처 생태계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정책 입안자는 물론 정치, 경제, 학계, 언론, 사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OVER THE VENTURE

한국 벤처역사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해 왔습니다

글 _ 조현정 (협회 회장)

협회의 요청에 의해 1996년 코스닥시장과 스톡옵션제 그리고 기술담보제가 만들어졌으며, 1997년에는 벤처의 총괄적인 정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주요대학에 순회강연을 펼쳐서 연구원들과 교수들의 창업을 독려하는 한편 실험실창업, BI, 벤처빌딩의 법적 근거 등을 만들었으며, 해외 27개 지부에 한국계 청년기업가의 네트워크인 INKE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1997년 말 IMF사태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명퇴, 조퇴 등으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벤처스타들의 성공스토리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창업과 벤처열풍을 확산시켜 IMF를 조기 졸업하는 동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코스닥지수를 무려 283.4(현기준 2834)포인트

까지 올렸던 버블은 불과 9개월 만에 52포인트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이 개설된 지 불과 3~4년 만에 학습의 경험이 없었던 코스닥의 버블로 인해 각종 게이트로 대변되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터졌으며, 그 후유증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연평균 성장률 25.4%, GDP의 3%, 수출의 4%를 달성할 만큼 한국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였으며, 한국이 IT강국이 되기까지 벤처기업의 선도적인 제품과 부품소재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는 2000년부터 비난과 무관심의 5년을 보냈습니다.

벤처는 멈출 수 없는 국가의 정책이자 이공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기에, 협회 임원들은 작년 12월에 ‘벤처활성화정책’이 발표되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 협회의 저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협회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벤처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투명경영에 솔선수범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회원들 대부분이 우리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 주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성과는 항상 곁에서 아낌없이 격려해준 회원 여러분의 역할과 몫이었습니다. 향후 10년에도 벤처기업협회가 벤처산업 육성과 회원기업의 절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